

백화점 새봄맞이 여심잡기 '경쟁'

광주 신세계 '샤넬' 앞세워 메이크업쇼 롯데 광주점 '맥' '룩시땅' 들여와 맞붙

불황일수록 화장이 짙어진다. 이른바 '립스틱 효과'다. 요즘 지역 백화점업체가 새 봄맞이 화장품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이 가방이나 의류 등 비싼 제품보다는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화장품을 더 많이 살 것이라는 데 착안한 마케팅이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공격의 포문을 연다. 신세계는 13일부터 22일까지 '뷰티페어'를 열고 메이크업 쇼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뷰티페어 오픈은 올 초 롯데백화점과 대립각을 세우며 백화점 전 지점에서 매장까지 철수한 '샤넬'이었다. 샤넬은 13~15일까지 백화점 1층 광장에서 메이크업 쇼를 진행한다.

샤넬의 뒤를 이어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비디비치'(16~19일)와 수입 화장품인 '에스티로더'(20~22

일)가 각각 메이크업 쇼를 진행한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13일부터 10일 동안 화장품 2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여성복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행사를 진행, 화장품 샘플 교환, 화장품 기획세트 등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코스메틱 페어'를 진행한다. 국산 화장품인 '오워'(LG생활건강)가 20일 1층 광장에서 메이크업 쇼를 연다.

또 화장품 브랜드별로 단골고객에 한해 감사품을 증정하고 자체적으로 메이크업 행사도 실시한다. 이밖에 화장품 기획세트, 샘플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는 샤넬 화장품이 빠진 1층 매장(48m)에 내달 초 색조화장품 브랜드인 '맥'과 자연주의 화장품인 '룩시땅'을 들여온다.



11일 오후 광주 신세계백화점 2층 한 화장품 코너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고객에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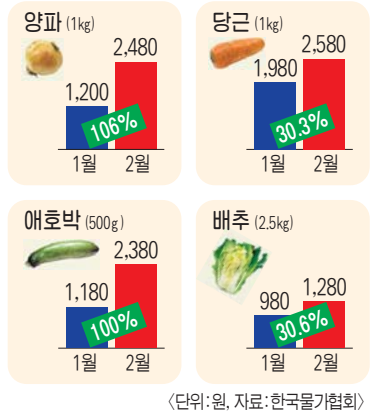
한편, 지난해 말부터 지역 '백화점'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매출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화장품의 경우 전년대비 20~30%가량 신장률을 보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가뭄 때문에

수확량 줄어 양파·당근·배추 등 채소값 급등

양파, 당근 등 주요 채소류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1일 (사)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양파값은 kg당 2천480원으로 올 1월 1천200원까지 106% 올랐다. 또 당근 kg당 가격은 2천580원으로, 지난 1월 1천980원에 비해 30.3%나 올라 전국(서울 2천380원)에서 가장 비쌌다.

서 두 배 오른 2천380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980원까지 가격이 하락했던 배추(2.5kg)도 올 2월 1천280원으로 30.6%나 상승했다. 이처럼 채소류의 가격이 높은 폭으로 오르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생산량 자체가 감소한데다 상품성 저하까지 겹치면서 출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해남 등 월동배추 산지에서는 실제 해남 등 월동배추 산지에서는 속썩음병이나 잎갈마름병 등으로 생



수량이 예년에 비해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양파는 2007년 과잉생산되면서 지난해 2월 가격이 폭락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지난해에는 양파 농사를 기피, 재배면적을 많이 줄여든데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유가 덕분에

국제 기름값 내려 3~4월 유류할증료 대폭 인하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3~4월 국내선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은 3~4월에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5천500원(1~2월 기준)에서 3천300원으로 40% 내린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달 후에 반영하는 구조여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평균 가격을 3~4월에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켈런당 평균 142센트로, 국내선 유류할증료 체계로는 2단계가 적용된다. 켈런당 120센트를 밑돌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MOPS가 140센트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3~4월에는 면제된다. /연합뉴스

한국 디자인 '뉴욕커' 사로잡다

세계 정상무대 '모마' 입성 소핑백 등 작품 독점 인기

한국 젊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이 '세계 정상 무대' 미국 뉴욕에 진출했다. 그것도 디자인의 격전지로 꼽히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이다. 한국 디자인 작품 75점이 11일(한국시간)부터 뉴욕 모마의 디자인 스토어에서 전시돼 뉴욕커 및 전 세계 관광객들과 즐겁게 만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모마 측이 세계 주요 도시를 주제로 신에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스티네이션: 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출품작들은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똑부러진 디자인'이다. 이면에 '스토리'가 들쭉 담긴 작품도 많다. 이 가운데는 한국에서 병뚜껑이 없을 때 손가락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데 착안한 '손가락 모양의 병뚜껑'도



뉴욕현대미술관(MoMA·모마)의 디자인 스토어에서 관람객들이 11일 한국 디자인 상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있고, 전통적인 도자기를 접으로 만든 제품과 새와 구름 모양을 한 후추통, 기념일에 언제든 켤 수 있는 포켓 사이즈의 초, 한글이 적힌 현수막을 재 활용해 만든 소핑백 등 다양하다. 모마는 이번 작품들을 100~1천개씩 제작해 7~100달러에 판매한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SAFA 사파 제조회사

SAFA SF-01

만제 어디서든 조이케질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집니다.

조이케질 SF-01

042) 365-3200 1688-1471 02-487-8256

농어촌서도 내달부터 펀드 판매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촌이나 어촌 주민들이 도회지로 나가지 않고도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들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지역 단위 농·수협은 물론 우체국, 저축은행, 신용금고, 신탁 등이 연내에 농어촌 지역의 펀드 판매 능력을 갖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펀드판매인 자격 취득자를 고용한 66개 저축은행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먼저 받은 곳부터 이르면 다음달 펀드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협은 전국 1천184개 지역 농협 가운데 985곳에서 펀드 판매를 위한 투자중개업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세부 기준이 정해지면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펀드 판매에 나선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4월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96개 지역조합 가운데 기본 요건을 갖춘 조합들을 중심으로 펀드 판매에 들어간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천700여개 우체국 가운데 200여개 총괄우체국을 중심으로 연내에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보험설계사 계약 체결권 없다" 1달러 = 1,393원... 두달만에 최고

금융감독원이 11일 계약체결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주요 계약사항을 구두로만 알리던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설계사와 대리점, 중개사 등 보험 가입 채널을 보험회사와 동일시해 이들에게 중요계약 사항을 구두로 통보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험가입 채널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계약의 변경, 해지, 통고,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가입신청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모집인만 알리는 경우, 해당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국내의 주가 급락의 여파로 1천390원대로 상승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0.60원 뺀 1,393.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작년 12월10일 1,393.80원 이후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37.10원 폭등한 1천42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자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1,390원대 초반으로 밀렸다. 환율은 오후 들어 매물 증가로 1천385.10원까지 급락하고 나서 저가인식 매수세가 들어오자 1천390원 선을 회복했다. 미국 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금융구제안을 발표했다지만 구체적인 부분이 빠진 데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부추겼다. /연합뉴스